

발행인 이동귀
편집인 김경희 · 김서연 · 양승민

T (02)498-8293
F (02)498-8294

H <http://www.krcpa.or.kr>
E kcpa@krcpa.or.kr

04797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118
성수아카데미타워 42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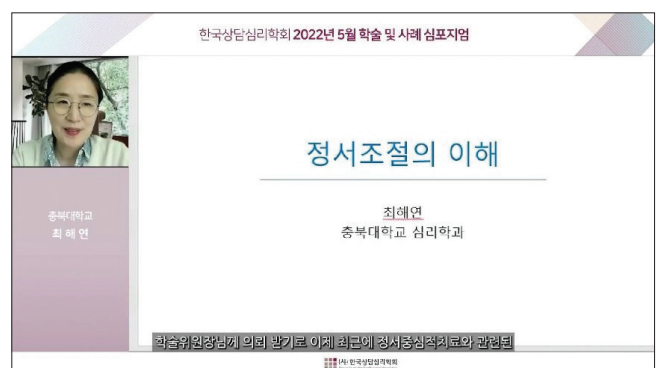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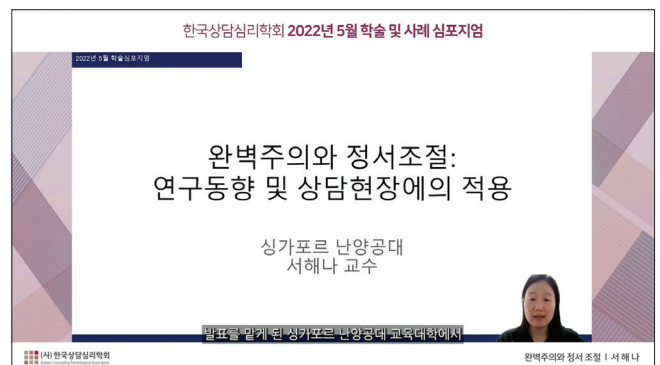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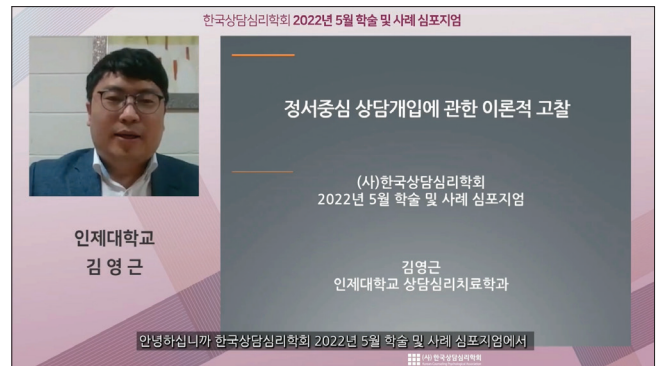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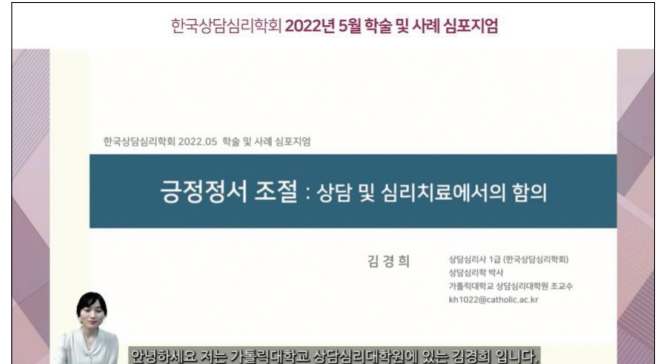


사무국

1. 5월 학술 및 사례 심포지엄 실시

한국상담심리학회 2022년 5월 학술 및 사례심포지엄이 5월 21일 (토)에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시간	프로그램명
10:00 ~12:00	[사례연구위원회] 자기 감정 인식을 통한 공감의 확장 ▶ 김학진(고려대학교) ▶ 사회 : 임지숙(명지대학교, 2022년 한국상담심리학회 사례연구위원장)
13:30 ~17:00	[학술위원회] 1. 정서 및 정서 조절의 이해 ▶ 최해연(충북대학교) 2. 정서 중심 상담 개입에 관한 이론적 고찰 ▶ 김영근(인제대학교) 3. 완벽주의와 정서 조절 ▶ 서해나(남양공과대학교) 4. 긍정 정서 조절 : 상담 및 심리 치료에 대한 함의 ▶ 김경희(가톨릭대학교) ▶ 사회 : 박현주(동국대학교, 2022년 한국상담심리학회 학술위원장)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 <심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참여 확정

1) 협의체 목적

- ① 「심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립 연구」 목적 및 방법, 내용 공유
- ② 심리서비스 활성화 관련 협의체 참여 기관 간 의견 교류

2) 진행사항

(1) 1차 협의체 회의

- ① 일시 : 5월 18일 14:00
- ② 주요내용
 - 한국상담심리학회 포함 결정
 - 협의체 운영 방향: '심리' 영역과 '상담' 영역으로 협의체 재구성에 합의
 - 협의체 참여 기관의 활동 사항 및 선행연구에 대한 공유

(2) 2차 협의체 회의

- ① 일시: 6월 24일 (예정)
 - ② 영역별 구성이 아닌, 개별 학회 2인 참석으로 협의체 구성 변경
-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게시판 > 법제화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1. 자격검정위원회

• 2022년 제50차 상담심리사 자격검정 일정 안내

① 자격시험(필기)

구분	일정 및 내용	
응시자격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6/10(금) 예정
필기시험	홈페이지 신청 및 필기시험 응시료 납부	6/10(금)~6/15(수) 23:00마감
	자격시험(필기)	6/25(토)
	합격자 발표	7/5(화)예정

② 자격심사(면접)일정

구분	일정 및 내용	
응시자격 서류심사	홈페이지 신청 및 서류심사비 납부	7/5(화)~7/11(월) 23:00 마감
	원서 및 제출서류 우편 발송	7/5(화)~7/11(월)
	합격자 발표	8/12(금) 예정

구분	일정 및 내용	
면접심사	홈페이지 신청 및 면접심사 응시료 납부	8/12(금)~8/17(수) 23:00 마감
	자격심사(면접)	8/27(토)
	합격자 발표	9/5(월) 예정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홍보위원회

홍보위원회에서는 <놀면서 배우는 심리학> 유튜브 심리학분야 1위 채널 운영 회사 싸이즈업(Psy's Up)과의 정신건강 콘텐츠에 관한 협약을 기획 후 협약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학회 전문가 및 상담심리사 자격의 전문성 홍보 목적의 영상제작 및 유튜브채널 운영의 효과성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협약식

- ① 일정: 5.13(금) 16:30~17:00
- ② 장소: 학회 사무국
- ③ 참석: 이동귀 학회장, 싸이즈업(놀면서 배우는 심리학 유튜브 채널 운영 업체) 대표 최설민

싸이즈업 최설민 대표는 “대중들에게 상담심리학, 나아가 올바른 심리상담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와 소통의 시간을 만들어가겠다”고 본 협약에 대한 의의에 대해 전했습니다.

일상에서 심리학을 적용하는 법을 널리 알리고 있는 유튜브 심리학 분야 1위 채널 ‘놀면서 배우는 심리학’ 운영 업체의 노하우 공유 등, 우리 학회 홍보 효과 증진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3. 학회지편집위원회

1)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34권 2호 목차 안내

구분	일정 및 내용	
1	초심상담자의 화상상담에 대한 인식 및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화상상담 경험 전과 후	유주희, 정혜정, 연규진, 허자영, 김예은, 최중휘
2	한국 상담자의 발달과 관련된 수퍼비전 요소에 대한 질적 메타요약	조은실, 이지영, 차윤지, 백인규, 양은주
3	기업상담 세 주제 간 기대와 갈등 조율 과정: 내부모델 상담자를 대상으로	성예경, 변시영
4	상담자의 포커싱적 태도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진정성, 역전이 관리 능력, 작업동행 차이 검증	조준희, 주은선
5	재한 중국인 상담전공자의 수련경험	주홍화, 이소연, 서영석
6	기업상담자가 지각하는 상담 수퍼비전에서의 도움 및 아쉬운 경험	변시영
7	따뜻함과 안전 초기기억 척도 타당화	박세란
8	한국판 지속비애척도(PG-13-K) 종단 타당화 연구	이동훈, 이덕희, 이다미, 김민지
9	한국판 다차원적 문화적 겸손성 척도 타당화 연구	이은진, 최보윤, 한주옥
10	거부민감성이 내면화된 수치심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기불일치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조혜빈, 박재우
11	공적 자의식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자기개념 명확성의 이중매개효과	하서연, 하정
12	불안정 성인애착, 우울 및 자살생각의 관계: 정서조절의 매개된 조절효과	김지현, 김영근
13	탈북청소년의 진로결정자율성에 따른 진로준비행동, 결과기대, 낙관성의 차이: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중심으로	이지은, 신선임
14	아동기 정서적 외상이 성인진입기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에 미치는 영향: 불안정 성인 애착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김태연, 남지은
15	청소년의 트라우마	이동훈, 박세원, 김성현, 류도희
16	반려동물 상실 애도와 심리적 성장의 관계: 의미재구성과 긍정적 사회적 반응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성아, 유성경
17	팬데믹 스트레스의 이해와 측정	최해연, 최현아
18	2,30대 여성의 코로나 19 스트레스가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소외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와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조절된 매개효과	이재인, 신희천

※ 원문확인: 한국상담심리학회 홈페이지(<http://www.krcpa.or.kr/>) 로그인 - 학술활동 - 학회지

※ 학회지 구입문의: 한국상담심리학회 홈페이지(<http://www.krcpa.or.kr/>) 로그인 - 학술활동 - 우편구독 신청/취소

2)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특별호 원고 모집

지속적인 코로나 위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 변하는 삶의 방식에 적응하며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신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존의 상담접근 외에 다양한 방식 (예, 전화 및 화상상담, AI 활용, 가상현실을 활용한 치료 등)의 시도들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상담심리의 본질은 그대로이지만 다양한 접근을 활용하는 현 시점에, 전통적인 상담 및 새로운 방식의 상담 접근의 유용성 및 함의점들을 논의해보는 것은 중요할 것입니다. 이에, 한국상담심리학회 학회지 편집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로 특별호 원고를 모집합니다.

• 특별원고 주제: COUCH 에서 AI 까지

- 예) (1) 전통적인 상담과정 및 방법, 성과
(2) AI를 상담에서 적용하기
(3) VR을 활용한 심리치료(예: 우울, 불안)
(4)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상담에서의 윤리적 이슈

• 원고 접수 마감일: 2022년 7월 31일(일)

4. 상담심리사 지원위원회

1) 한국상담심리학회 노무칼럼 2022년 5월호

단시간, 초단시간노동자의 권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박 공 식

이팝노동법률사무소 대표

김○○ 상담심리사는 □□연구기관에서 기간제, 시급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시간이 매우 짧은 '초단시간노동자¹'이기도 합니다. 근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김○○ 상담심리사의 주요 근로조건 <초단시간 노동자>

1. 계약기간: 2022.2.1.~2022.4.30. (3개월 계약직)
2. 근무일 및 근무시간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주3일 출근) / 1주 소정근로시간 12시간
업무시작 및 마감 10:30~15:00
휴게시간 13:00~13:30(30분)
3. 급여형태: 시급제
4. 휴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하되 초단시간노동자는 적용 없음
5. 퇴직금: 초단시간노동자에 해당하여 적용 없음
6. 휴일: 초단시간노동자에 해당하여 적용 없음

1 초단시간노동자: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

김○○ 상담심리사는 해당 연구기관에서 처음부터 초단시간노동자는 아니었습니다. 처음의 계약기간에는 일주일에 20시간을 근무하는 “단시간 노동자”로 일하다가 다시 근로조건을 달리하여 위 같은 계약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 같은 근무조건으로는 충분한 경제적 보상이 부족하기에 한 곳 이상의 기관이나 센터에서 단시간 또는 초단시간 근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 상담심리사가 초단시간노동자인 이유는 '4주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²이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단시간 근로 계약에서 초단시간 근로계약으로 전환할 당시 연구기관이 작성을 요구한 확인서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 적용 제외 관련 내용 확인서

1.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 - 유급휴일(주휴일), 제60조 - 연차유급휴가)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의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 받아 법령에 의거 연차유급휴가, 주휴일 및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함에 동의하며, 향후 이에 대한 내용의 시시비비나 금전적 요구를 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동의(확인)인 상담심리사 김 ○ ○ (인)

사업주인 연구기관이 굳이 위 같은 확인서 작성을 요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확인서가 없더라도 이미 김○○ 상담심리사는 초단시간 노동자의 위치에 있는데, 아마도 차후의 근로관계 종료시점에서 어떠한 법적 논쟁도 차단하고자 하는 치밀하고도 꼼꼼한 사업주의 대응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 상담심리사는 본인이 생각 하기에 낮은 시급에도 불만이 있지만 위 같은 확인서에 서명하면서 본인 스스로의 노동의 가치, 근로조건에 차별적인 현실에 한 번 더 상처를 받았습시다.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노동관계법상 무엇이 적용되지 않는지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의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일은 물론이거니와 ‘관공서 유급 공휴일’ 또한 적용 되지 않습니다. 연차유급휴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 제도, 기간제법상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제한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로의 고용 의제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4대 보험 역시 그 의미는 약간 다르지만 1개월간 60시간 미만인 단시간노동자에 대하여는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입이 될 뿐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의무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인권위는 2017년 초단시간노동자에게 위 같은 노동기본권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개정을 고용노동부에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 또한 일부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하고, 기본적인 사회적 연대성에 기초한 임신·출산과 육아 등 모성보호 휴가, 업무상 산업재해 보상, 유급공휴일과 상병휴가 등에 대해 근로형태와 무관 하게 노동자를 동등하게 처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시장의 통계를 보면 오히려 2000년 1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초단시간 노동자는 월 단위로 수십만 명 수준에서, 2018년 3월부터는 100만 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2021년 5월에는 그 수가 150만 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초단시간 노동자가 임금노동자 중 차지하는 비율은 2003년 1.2퍼센트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에는 3.8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담심리사의 고용현황도 계약직, 단시간 또는 초단시간의 근무조건 이 이미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작은 사업장, 특히 상시노동자 5인 미만의 규모에서 종사하는 노동자 에게 노동기본권(가산임금, 연차휴가, 해고제한 근로시간의 제한 등)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시 간의 길이만으로도 노동기본권을 차별받는 노동자가 바로 단시간 노동자 나아가 김○○ 상담심리사와 같은 ‘초단시간 노동자’입니다.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시간의 길고 짧음에 관계없이 노동 관계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온전하게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목소리와 연대는 일터에서 묵묵히 일하는 상담심리사의 권리를 제대로 살펴보는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 단시간 노동³, 초단시간 노동과 관련하여 보다 궁금한 내용이나 현장에서의 질문이 있다면 상담심리학회 지원위원회의 Q&A게시판을 통하여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

²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적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7호>

³ - 단시간노동: 단시간노동(part-time work)이란 단위기간 동안의 소정근로 시간이 상시적으로 비교되는 통상노동자(comparable full-time worker)의 그것보다 짧은 노동자를 말한다.(ILO 175호 단시간노동협약 제1조)

- 단시간노동자: 단시간노동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노동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노동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8호)

5. 교육연구위원회

1) 2022년 7월 하계 교육연구 안내

- ① 주제 : 애착트라우마 상담의 실제
- ② 일시 : 2022년 7월 1일 (금) ~ 7월 2일 (토) 10:00 ~ 17:30
- ③ 방식 : 온라인 생중계
- ④ 세부 프로그램

구분	일정 및 내용	
09:55~10:00	학회장 인사	
10:00~13:00	애착트라우마 상담의 실제(1) : 감각운동 심리치료	애착트라우마 상담의 실제(2) : 정신화 기반 상담
14:30~17:30	1차시 : 감각운동 심리치료의 정의와 6가지 철학 원리 2차시 : 기본 개념과 기술(1) - 현재 순간 마음챙김하기/지시적 마음챙김과 신경가소성 3차시 : 기본 개념과 기술(2) - 삼위일체의 뇌와 정보처리/신경지각과 수용의 창 4차시 : 단계별 치료과정 - 치료 3단계와 회기별 치료과정 5차시 : 치료 1단계(자원 개발하기), 치료 2단계(기억 다루기) 6차시 : 치료 3단계(성격통합) 및 질의 응답 강사 : 이승호(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교수)	1차시 : 정신화의 의미; 애착 트라우마가 정신화에 미치는 영향; 비정신화(nonmentalizing) 유형 2차시 : 정신화의 네 가지 차원 및 평가; 정신화 기반 접근 상담자의 자세 3차시 : 정신화 기반 상담에서 정신화 개념의 원칙 4차시 : 정신화 초점 기법과 적용 예시 I 5차시 : 정신화 초점 기법과 적용 예시 II 6차시 : 정신화 초점 기법과 적용 예시 III 강사 : 김진숙 교수(경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강의 소개	본 교육연구는 Pat Ogden의 <감각운동 심리치료(이승호 역, 하나의학사, 2021)> 기본 개념과 기술을 배우고 실습으로 체화(embodiment)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각운동 심리치료(Sensorimotor Psychotherapy)는 소매틱(somatic) 심리학을 토대로 대인관계 신경생물학, 신경과학, 애착 연구 성과를 통합한 '몸 지향 대화 치료(body-oriented talking therapy)'로, 감각운동(신체감각, 움직임, 오감지각)에 초점을 두고 트라우마와 애착 문제로 발생하는 내담자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문제를 다룹니다. 정신화(mentalization)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정신 상태, 즉 감정, 생각, 욕구, 동기, 의도, 신념, 태도 등과 내면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알아차리고 헤아리는 과정을 뜻합니다. 정신화를 통해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행동을 납득할 수 있고, 내면의 반응을 자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애착 트라우마는 이러한 정신화 능력의 발달을 저해합니다. 따라서 애착 트라우마를 겪은 내담자들 중에는 정신화 능력에서 큰 변동성을 보이거나 전반적인 결손을 보이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내적 반응과 경험을 제대로 이해하고 조절하지 못하기에 상대방에게 전달하기도 어렵습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흥분된 상태이거나 애착욕구가 촉발된 경우 특히 취약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감정과 경험을 알아차리고 이해하는 능력도 손상되어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결과 근래 청소년과 초기 성인기 내담자들에게서 자주 볼 수 있듯이, 자해나 다른 자기파괴적인 행동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번 교육연구에서는 실제 상담 장면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다수의 축어록과 사례 중심으로 정신화 기반 상담의 기본 원칙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애착 트라우마가 있는 경계선 성격장애 내담자뿐만 아니라 자해 등 자기파괴적 행동이나 타인을 향한 공격적 행동을 하거나 자기이해, 타인과의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과 성인 내담자들의 정신화 능력을 높이기 위해 상담자가 어떤 식으로 반응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현황 (2022년 5월 26일 기준)

개 인 회 원 총 : 39,445명	정 회 원	일 반 정 회 원	9,780 명
		상담심리사 2급	5,416 명
		상담심리사 1급	1,791 명
	준 회 원		22,458 명
기 관 회 원	기 관 회 원	77 개	
	2022년 자격유지 기관회원	45 개	



회비납부 및 회원 자격유지 안내

본 학회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로그인 하신 뒤 마이페이지의 '연회비 납부 및 심포지엄 참석확인'을 클릭하시면 최근 5년간의 연회비 납부 현황과 심포지엄 참석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입회비와 연회비 안내

(단위 : 원)

신입회원 가입비	정회원	입회비 10,000 + 연회비 25,000
	준회원	입회비 10,000 + 연회비 15,000
상담심리사 1급 연회비		45,000
상담심리사 2급 연회비		25,000
정회원 연회비		25,000
준회원 연회비		15,000
기관회원 연회비		입회비 300,000 + 연회비 100,000

※ 당해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학회 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학회지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 학회지 오프라인 구독(우편구독) 신청
연회비 완납 회원 중 우편구독을 희망하는 경우 홈페이지 로그인 > 학술활동 > 우편구독 신청/취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구독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기간	금액	1년 발송권수
(이전연도) 12월 1일~2월 28일	10,000	4권
3월 1일~5월 30일	7,500	3권
6월 1일~8월 31일	5,000	2권
9월 1일~11월 30일	2,500	1권

※(참고) 12월 1일 - 12월 31일 신청자에게는 차기년도 학회지가 발송됩니다.

• 회비 납부 방법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연회비 납부관리 > 카드결제 / 실시간 계좌이체

• 한국심리학회로 통합 납부

한국심리학회비 + 한국상담심리학회비

→ 한국심리학회 홈페이지에서 통합 납부(www.koreanpsychology.or.kr)

회비 납부는 신용카드 결제, 무통장 입금, 지로 납부 중에서 선택 가능

※ 본 학회 정회원은 모학회인 한국심리학회의 정회원이어야 합니다(운영규정 제4조 1항). 이에 한국심리학회와 한국상담심리학회에 각각 회원으로 가입하고 연회비도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 한국심리학회로 통합 납부한 회비는 바로 확인이 불가합니다. 당월 1~15일 납부하신 내역은 월말에 확인이 가능하며, 당월 16~31일에 납부하신 내역은 익월 중순에 확인 가능합니다.

※ 결제방법에 대한 자세한 문의 및 결제는 한국심리학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www.koreanpsychology.or.kr

문의 (사)한국심리학회

E-mail | kpa@kpsy.or.kr

2. 회비 납부에 따른 회원 자격 안내(운영규정)

제12조 (회원의 자격 정지 및 회복)

1. 회원, 상담심리사 자격 취득자, 기관회원의 자격은 회비 미납 등 또는 징계에 의해 정지된다.

2. 회원의 자격정지와 회복

(1) 본 학회 회원으로서 2년 이상(당해 연도 제외) 회비가 미납된 회원은 회원의 자격 및 권리가 정지되며, 자격정지기간의 수련과정 및 수련감독을 포함하여 회원으로서의 활동을 인정하지 않는다.

(2) 회비미납으로 자격 및 권리가 정지된 회원은 미납기간(회비 미납기간의 최초 2년)의 미납 연회비와 당해연도 연회비인 3년분의 연회비 납부와 동시에 회원의 자격이 회복된다.

(3) 수련자의 경우, 회비 미납 등에 의한 수련과정 불인정은 「상담심리사 수련과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4) 회원의 징계에 의한 자격정지와 회복은 「윤리강령 시행세칙」에 따른다.

3. 상담심리사의 자격정지와 회복

(1) 상담심리사 1, 2급 자격 취득자의 회비 미납 및 보수교육 미이행 등에 의한 자격정지 및 회복은 「상담심리사 자격규정」에 따른다.

(2) 상담심리사 1, 2급 자격 취득자의 징계에 의한 자격정지와 회복은 「윤리강령 시행세칙」에 따른다.

4. 기관회원의 자격정지와 회복

(1) 기관회원의 경우, 제8조 1항의 자격에 미달되는 경우 해당기간 중에는 기관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정지 된다. 단, 제8조 4호에 해당되는 기관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자격정지 기관은 제8조 1항의 자격을 충족한 후 재심사 요청을 통해 회복할 수 있다.

※ 위의 학회 운영규정에 따라 2년 이상 연회비를 미납하면 3년 차부터 회원 자격이 정지되며, 당해 연도를 포함한 3년분 미납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회원 자격이 회복됩니다. 단, 회원자격 정지기간의 수련내용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자격 정지(당해연도 포함 3년 미납 시)로 인한 회원 자격회복 기준 안내

(예시) 2022년 당해연도 기준

당해연도인 2022년을 포함하여 2020~2022년까지 미납으로 인해 자격정지 상태에서 자격회복을 할 경우 운영규정 제 12조(회원의 자격 정지 및 회복) 1~2항에 근거하여 3년분(당해연도 포함)의 연회비 납부로 회원 자격은 회복되나, 2020~2021년은 당해연도 연회비 완납이 아니므로 심포지엄 참석이 있어도 수련내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2년은 당해연도 연회비 완납이므로 심포지엄 참석이 있다면 수련내용 인정됩니다. 연회비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매년 연회비 납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2019	2020	2021	2022 (당해연도)
회비 납부 현황	완납	미납 ▶ 완납	미납 ▶ 완납	미납 ▶ 완납
심포지엄 참석 현황	준회원 1회 정회원 2회	준회원 1회 정회원 2회	준회원 1회 정회원 2회	준회원 1회 정회원 2회
회복 기준	-	"3년분 납부"로 인하여 회원 자격은 회복됨.		
수련인정여부	인정	불인정	불인정	인정

4. 심포지엄 참석

2012년부터 모든 회원은 심포지엄 참석 의무가 있습니다(상담심리사 1급, 2급은 2010년부터 적용).

- ① 정회원(1급) 연 2회 참석 / 참석 기준 미달 시 차기년도 수련감독 활동 불인정
- ② 정회원(2급) 연 2회 참석 / 참석 기준 미달 시 그 해 수련내용 불인정
- ③ 정회원(자격증 미취득) 연 2회 참석 / 참석 기준 미달 시 그 해 수련 내용 불인정
- ④ 준회원 연 1회 참석 / 참석 기준 미달 시 그 해 수련내용 불인정

5. 상담심리사 1급, 2급 윤리교육 이수 의무화

〈상담심리사 자격규정 제2조(보수교육)〉에 따라 상담심리사 1급, 2급 소지자는 2년에 1회 이상 상담 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상담심리사 자격 검정규칙 제13조(자격심사 합격기준)〉에 따라 상담

심리사 1급, 2급 신규 취득자는 자격증 수여 전까지 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상담자 윤리교육은 학회 홈페이지 동영상 강의(Webinar) 수강 또는 학회 행사 중 인정되는 강의를 통해 이수할 수 있습니다.

6. 주수퍼바이저와 주수련감독자의 자격 요건

〈상담심리사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 6조(주 수련 감독자: 자격심사 추천자격자)〉에 따라 주수퍼바이저가 되기 위해서는 상담심리사 1급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매년 수퍼비전 교육 또는 수퍼비전 워크숍을 이수하여야 하며, 주수련감독자는 피추천인에 대한 개인상담 수퍼비전을 1급의 경우 10회 이상, 2급의 경우 3회 이상 실시한 자여야 합니다.

게시판

1. 소식지 내 게시판 이용 안내

- 게시내용 : 기본(120자) 3만원, 100자 추가 1만원
- 게시자격 : 정회원으로 당해 연도 연회비 납부자
- 접수마감 : 매월 25일

• 2022년 운영위원 및 실무진 연락처

구 분	직 위	성 명	소 속	이 메 일
회장단	학회장	이동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president@krcpa.or.kr
	부학회장	양난미	경상국립대학교 심리학과	vice-president@krcpa.or.kr
	부학회장	박성현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vice-chairman@krcpa.or.kr
	차기학회장	양난미	경상국립대학교 심리학과	n-president@krcpa.or.kr
	총무이사	김경희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manager@krcpa.or.kr
사무국	사무국장	김서연	사무국	s-chief@krcpa.or.kr
	팀장	박성민	사무국	kcpa@krcpa.or.kr
	팀장	이바다	사무국	kcpa@krcpa.or.kr
	선임	허재경	사무국	kcpa@krcpa.or.kr
	주임	임수연	사무국	kcpa@krcpa.or.kr
	주임	조한나	사무국	akrcpa@krcpa.or.kr
	주임	양승민	사무국	kcpa@krcpa.or.kr
	간사	이찬임	사무국	kcpa@krcpa.or.kr
	간사	고지수	사무국	akrcpa@krcpa.or.kr
학술위원회	위원장	박현주	동국대학교 교육학과	study@krcpa.or.kr
	부위원장	이항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부위원장	권혜경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사례연구위원회	위원장	임지숙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casestudy@krcpa.or.kr
	부위원장	원수경	마인드트림 심리상담연구소	
	부위원장	김수정	마음담당 심리상담연구소	
자격관리위원회	위원장	손보영	선문대학교 상담산업심리학과	certi-manage@krcpa.or.kr
	부위원장	조효진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연수위원회	위원장	권해수	조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education@krcpa.or.kr
	부위원장	한기백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사 수련위원회	위원장	정신영	육군사관학교 리더십/인성교육실	training@krcpa.or.kr
	부위원장	박종철	세움EAP	
홍보위원회	위원장	이혜진	잇셀프컴퍼니	pr@krcpa.or.kr
	부위원장	김지은	(사)상담사그룹 서로오롯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한영주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cooperation@krcpa.or.kr
	부위원장	박경은	세명대학교 교양대학	
	부위원장	김수진	(주)인컬리지 PTA Lab	
학회지편집위원회	위원장	유금란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edit@krcpa.or.kr
	부위원장	김민정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부위원장	최가희	계명대학교 심리학과	
	부위원장	최바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위원장	최보영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벌 및 윤리위원회	위원장	윤정숙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상담센터	ethics@krcpa.or.kr
	부위원장	김영혜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상담센터	
	부위원장	이수민	경상국립대학교 심리학과	

구 분	직 위	성 명	소 속	이 메 일
자격검정위원회	위원장	김태선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akrcpa@krcpa.or.kr
	부위원장	심은정	송실대학교 베어드교양대학	
	부위원장	이은설	인천대학교 창의인재개발학과	
	부위원장	조영주	국립한경대학교 교양교육대학	
공공정책 및 위기지원위원회	위원장	최해연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community@krcpa.or.kr
	부위원장	이수란	경남대학교 심리학과	
학술윤리위원회	위원장	함경애	신라대학교/부산 동래교육청	study-ethics@krcpa.or.kr
	부위원장	손하림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상담심리사지원 위원회	위원장	변상우	서울예술대학교 예술창작기초학부	support@krcpa.or.kr
	부위원장	박수현	치유심리전문가그룹 협동조합	
	부위원장	조문주	조문주심리상담연구소	

역대회장: 윤호균, 이해성, 정영운, 김남성, 이재창, 연문희, 안창일, 이영희, 최해림, 김정희, 김수현, 김정택, 김광웅, 이규미, 박애선, 금명자, 강순화, 정남운, 최윤미, 주영아, 유계식, 구본용, 이은경, 조성호, 유영권, 송미경, 성승연, 강이영